

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-NH농촌현장봉사단 농촌 주거 환경 개선

김상준기자 | 승인 2022.08.08 17:41 | 10면

“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며 따뜻한 행복나눔 실천”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와 NH농촌현장봉사단은 ESG경영 실천을 위해 합동으로 경남 합천군 봉산면에 거주하는 돌봄 대상자 집 고쳐주기 행복충전활동을 실시했다. /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(지사장 손홍모)와 NH농촌현장봉사단(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 지부장 강문규)은 ESG경영 실천을 위해 합동으로 경남 합천군 봉산면에 거주하는 합천농협(조합장 최정규) 관내 돌봄 대상자를 대상으로 집 고쳐주기 행복충전활동을 실시했다.

이날 합동 봉사단은 농촌의 노후주택을 장판·도배 및 주방(싱크대 등) 교체와 에어컨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한 보금자리로 재탄생 시켰다.

손홍모 지사장은 “농협과 함께 합동으로 농어촌 집 고쳐주기 활동을 함으로써 농촌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, 앞으로도 다양한 행복충전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행복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전했다.

강문규 지부장은 "돌봄이 필요한 농촌가정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게 되어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 김상준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상준기자